

전남 곳곳 태양광발전소 건립 마찰

전남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놓고 업체와 주민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호에 75㎿급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T업체는 지난달 23일 장성군 장성호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장성호에 대형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장성호 주변 북하면, 북이면 주민들과 장성 일부 시민단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성호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생태계 변화, 환경파괴로 농사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장성호 75㎿급 발전소 건립 움직임…반발 거세

전남 생태마을 1호 광양 관동마을 주민도 반발

면서 장성호 주변 곳곳에 발전소 건립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특히 “장성댐 주변에 수변테크길과 출렁다리가 조성돼

M사는 지난달 25일 다압면 고사리 일원 3만4655㎡부지에 280㎿급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에 주민들은 전남도 생태마을 1호인 관동마을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7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장성군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양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추진에 대해 주민반발이 거세다.

려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도감사실 감사요청과 함께 시청 등에서 사업철회 시까지 반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신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

성호의 소유주는 농어촌공사, 태양광발전소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해당 업체가 발전소 건립의 관련이 되는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이 강한 만큼 군 역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캐나다가게, ‘민망한’ 비밀봉투 손님 제공

캐나다의 한 식료품 가게가 상점 로고 대신 다소 부끄러운 문구를 새긴 비밀봉투를 손님에게 제공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지 않은 손님은 이상한 성인 비디오 가게 라 쓰인 봉투에 반찬거리를 담아 돌아가야 한다.

가디언은 벤쿠버의 이스트웨스트마켓이 기후 변화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같이 유쾌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비드 리 웨인 이스트웨스트마켓 사장은 “고객들을 당황하게 만드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손님들이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언가 강요하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며 비밀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 셈이라고 덧붙였다.

웬 사장이 처음부터 이런 훈당한 생각을 해낸 것은 아니다. 고객들의 비밀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5센트(약 400원)씩 비용을 부과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봉투 소비량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이 민망한 비밀봉투다. 웨인 사장은 “이 봉투로 고객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00개 한정으로 제작된 비밀봉투를 사겠다고 나선 당황스러운 손님도 있었다. 웨인 사장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한 몇몇 손님이 비밀봉투를 수집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계획은 효과가 있다며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지 않고 비밀봉투를 갖게 되면 어디서 이게 생겼는지 친구들에게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콩고 발병 ‘에볼라’ 인접국가 확산 조짐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지난해 8월 발병한 에볼라가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인 우간다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는 우간다가 민주콩고에서 입국한 5세 소년이 에볼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재발한 이후 국경을 넘는 첫 감염 사례라고 밝혔다.

이 소년은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었으며 현재 우간다 서부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WHO는 전했다.

10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지난해 8월 에볼라가 발병한 이후 139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WHO는 에볼라가 국경을 넘 경우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등 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호단체인 국제구호위원회(IWC)는 “에볼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에볼라가 국경을 넘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두 배로 늘어야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민주콩고는 1976년 처음 에볼라 사태를 겪었고 이번이 10번째 발병 사례다.

민주콩고 보건부는 지난 4일 자국에서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민주콩고 국민들이 격리되길 원하지 않아 보건소를 기피하기 때문에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감염자수가 1000명에 도달하는 데 7개월이 걸렸지만 2000명에 이르기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주콩고에서는 폭력사태 등의 영향으로 에볼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볼라 전염 확산 우려로 지난해 12월로 예정했던 대선이 취소되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서 전기 스쿠터 운전자 사망

프랑스 파리에서 10일 밤 전기 스쿠터를 타고던 남성이 뱃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경찰이 11일 밝혔다.

파리의 한 이달고 시장은 지난주 전기 스쿠터 단속 방침을 밝혔고 이후 파리에서 스쿠터 교통사고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년 동안 스쿠터 사망자가 12개가 생기면서 파리 곳곳에 전기 스쿠터가 넘쳐났으며 이와 함께 많은 부상 사고 및 운 좋게 사고를 피한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파리 시장은 파리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 스쿠터 속도를 시속 20km로 행인들이 번잡한 곳은 8km로 제한했다.

검찰, ‘소년 범죄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검찰이 소년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예술·심리치료와 피해자 모임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와 함께 소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별로 이들을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 첫 시도로 인천지검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3월 실인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 성폭력과 학교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소년과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10회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5월에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달부터는 뮤지컬 관람, 전통 문화 체험, 민화 그리기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대검 인권부는 지난 3월과 4월 부서 직원들이 참여한 ‘캘리그리피 체험’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이 가방 등 소품에 글씨와 그림을 그려 작품을 만드는 것을 도우며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대검 인권부는 전국 최초로 소년 피해자들의 ‘자조(自助) 모임’을 만들어 운영 및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검찰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아래 자발적으로 모여 집단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모임이다. 지난 2009년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래 현재 전국 32곳에서 운영 중이다.



내 손으로 수확한 보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교 인근 양재천에서 열린 2019 양재천 보리수확체험에 참여한 어린 이들이 보리수확을 하며 즐기고 있다.

구글지도 수년째 ‘김대중컨벤션센터 원승이학교로 표기’

센터 측 수정 요구에도 ‘개별 기관 요청 안된다’ 반복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구글지도에 ‘원승이학교’로 표기된 채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두 달여 동안 ‘원승이학교’ 광주 공연&아프리카 대립’ 공연을 유치한 후 구글지도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원승이학교’로 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인터넷 구글지도 검색 사이트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검색하면 김대중컨벤션센터 자리에 ‘원승이학교’라는 이름으로 표기되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 지난 2016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구글코리아 측은 “오류 신고가 접수돼 지도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지도반출 금지 조처로 전세계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 함께 듯하는 문제가 있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도 정보는 수년 째 비켜지 않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개별 기관의 요청으로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이 광주지역 주요 공공기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대신해 굳이 원승이학교 공연 정보를 지도에 표기했는지 대해서도 논란이다.

개관한 지 올해로 15년 째를 맞은 지역 대표 명소인 데다 호남지역 미아스(MICE, 회의·관광·전시) 산업의 메카라는 점에서 외부인들도 찾기 쉬운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표기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구글 측이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지도 오류를 방지하고 있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라 말을 다시 뚫어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건강IN
건강한 행복,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조기발전
자폐치료 중인 민혁군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질병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검진기준에 초점을 확장하고, 미리 미리 걱정 안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품질국 123 | 고객센터 1577-1000 |